

B15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10월 12일 수요일 제 547 호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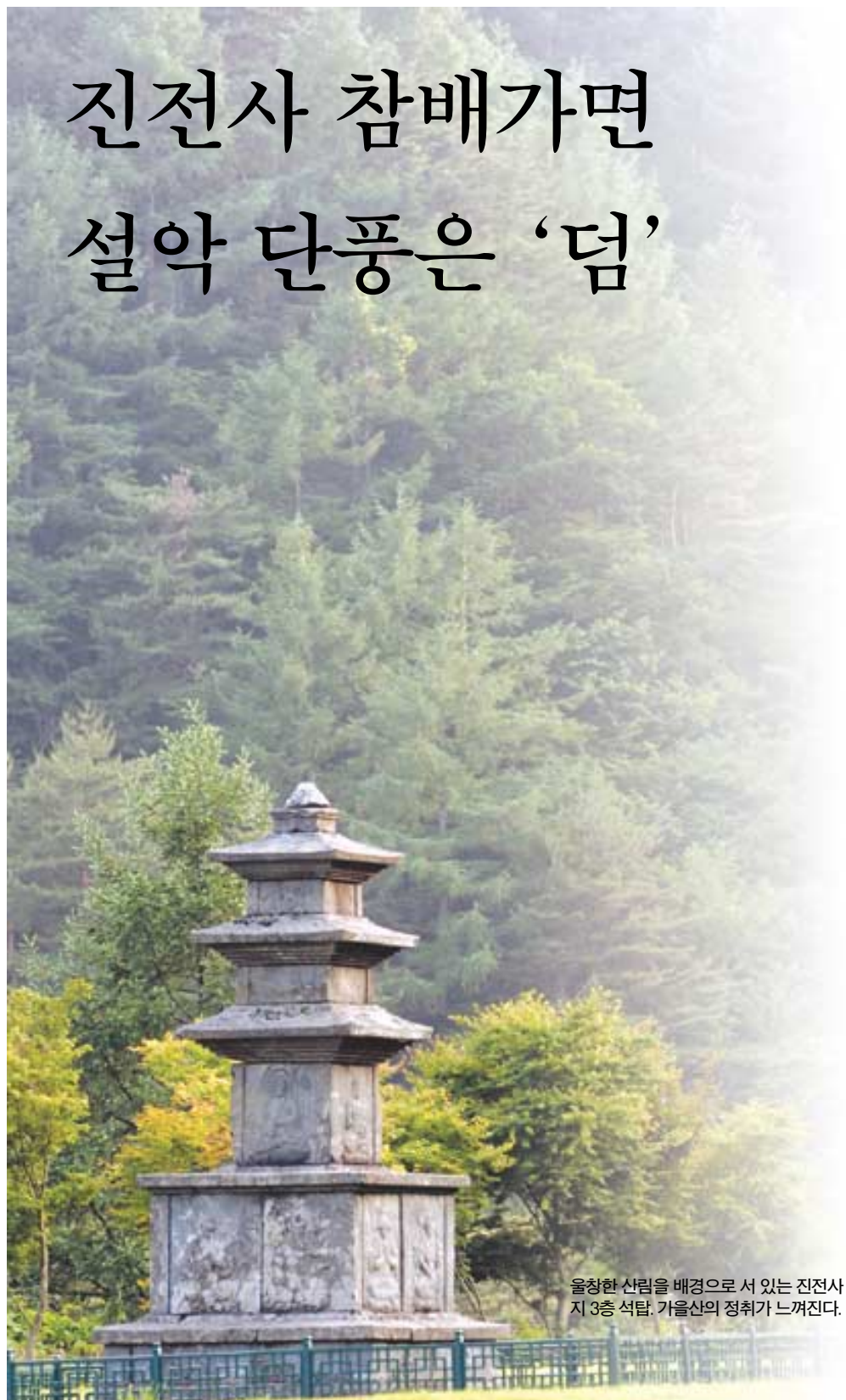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22~23일 양평 용문사, 생태농장 '초록향기'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용문사 가을캠프'를 연다. (02)720-1654

낙산사 음악회 양양 낙산사는 10월 15일 오후 6시 보타전 특설무대에서 'KBS강원 산과 꿈, 희망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김중서밴드, 문희준, 슈가 등이 출연할 예정. 18일에는 '강원예술고 감사와 사랑의 음악무대'도 진행한다. (033)672-2447

미항사 괘불재 해남 미항사는 10월 15일 오후 1시 경내에서 괘불재는 봉행한다. 괘불재는 보물 제1342호 미항사 괘불을 봉안하며, 판소리 공연, 수륙전도재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061)535-2706

B4면 상식 퍼즐 정답

회	암	사	지		
광		화	과	자	
반		자	비		
조	실		수		
	상		관	우	
	사	방	치	기	정
			식	탐	



울창한 산림을 배경으로 서 있는 진전사 지 3층 석탑. 가을산의 정취가 느껴진다.

진전사 참배가면 설악 단풍은 '덤'



지난 6월 열린 진전사 복원 낙성식에서 불자들이 기와를 봉정하고 있다.



불을 밝힌 진전사 대웅전과 요사채.

붉게 물든 산하(山河)가 행락객들을 유혹하는 가을이다. 화려한 수목들과 대화하며 산에 오르는 것은 가을에만 만끽할 수 있는 특권. 물론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한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권을 더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설악산 진전사다. 진전사는 설악산에서 승용차로 불과 1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가을 산을 보고 사찰도 참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명소다.

중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설악산에 위치한 진전사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사찰.

도의국사는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통일신라 시대인 서기 821년(헌덕왕 13)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서라벌로 돌아와 법을 널리 펼치던 대선사다. 특히 도의국사는 유학 당시 육조 혜능의 법을 계승한 서당 지당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귀족적이면서 교화에 익숙한 당시 불교계 분위기속에서 도의국사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 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종 교의의 가르침을 펴보지도 못한 채 진전사에서 주석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도의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국사 이후 일연 스님이 입산해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번지에 위치한 진전사는 9761평 부지에 20평 규모인 대웅전과 42평의 요사채로 꾸며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은 영주 부석사 등 고려시대 불교건축물을 참고해 주심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이뤄졌다. 또 현지에서 발굴된 기와 모양과 문양을 재현해 기와를 올렸다.

요사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양식. 진전사는 또 국보 제122호로 지정된 진전사지 3층 석탑과 도의국사 사리를 안치한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등이 있다.

진전사 주지 마근 스님은 "진전사는 조계종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아직 복원 불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완전한 사격(寺格)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조계종 종찰(宗刹)을 찾아 참배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0일이면 설악산 단풍이 모습을 감춘다고 하니 지금부터 떠날 준비해야 할 듯.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인근의 신홍사와 낙산사를 찾는 것도 좋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찾아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방면-양양 장산리-석교리-둔전리
- 중부고속도로-홍천IC-인제-속초-양양물치-장산리-석교리-둔전리
- 문의: 일도 스님(진전사 총무) 011-545-2375

전시



동글동글 동자의 얼굴을 아자지하게 표현한 이재순 작 '동불'.

전통미 배인 현대의 숨결

대한민국문화재조각회展 19~25일 공평아트

청명한 가을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불교조각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자.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봉석)가 제9회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전을 10월 19~25일 서울 공평아트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80여명의 회원 가운데 58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전통에서 탈피해 보다 현대적으로 미화된 조각'에의 도전이다. 8회까지는 주로 불상과 불교조각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그러나 올해는 보다 현대적인 조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상호를 드러내지 않은 채 단아한 나뭇가지로 광배와 입상을 표현한 조병현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671호)의 작품 '여래', 거친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흔적을 그대로 살린 박찬수씨(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의 '어머니', 부드러운 선과 거친 화강암의 질감이 드러난 이재순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1227호)의 '동불(童佛)',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허만호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1886호)의 대리석 '비천상' 등은 현대의 숨결이 전통의 바탕 안에 고스란히 배어났다.

한봉석 회장은 "이번 작품전은 지난 5월 개최했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세미나의 연장으로 봐도 좋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의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02)733-951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박찬수씨의 '어머니'.



조병현씨의 '여래'.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02)2004-8218~9

담소원(談笑園)

쑥과 창출, 석창포, 박하 등으로 만들어진 천연쑥향 담소원은 지킬 때 발생하는 기운이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며 강력한 살균, 살충작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

쑥에 포함된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 주고 부인병, 냉증, 비염, 폐결핵의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기능성 향이다.

가격은 1판 2000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년
新製品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엔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오.

- 1호 59cm × 18cm 약 연소시간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약 연소시간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약 연소시간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약 연소시간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 (1~4호 밀납초 받침대)



아양 용초

뒷줄 6개 = 10-1 70cm × 35cm
앞줄 5개 = 10-2 56cm × 26.5cm
그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